

광주시 첫 도입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전국 확산

정부, 일가정양립대책 반영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 지급
2019년 시행...전국 벤치마킹
"저출생 극복 위한 표준모델"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앞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출생축하

금(현재 첫만남 이용권), 손자녀돌보미,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 등도 전국화돼 광주시 출생·양육정책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비롯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도 전국 지자체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

으로 광주시가 첫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개발, 시행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04개 사업장

168명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 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재(8월30일 기준)까지 27개 사업장에서 50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경북, 전북, 충북, 군산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육아휴직 배려 문화의 기반을 넓히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 고용노동부의 전국 표준모델로 자리잡아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의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사업이 저출생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자리잡게 됐다"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엄마·아빠가 편하고 행복한 도시를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한부모가족에 수산물 꾸러미 제공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한부모가족 6000세대에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산물 꾸러미는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 중 지속전복, 반건조우럭, 마른멸치, 미역, 다시마 등 7종, 5만 원 상당으로 양질의 영양식이면서도 조리하기 간편한 수산물로 구성됐다.

지역 수협을 통해 수산가공품을 납품받아 수협중앙회에서 지난달 29일까지 이틀간 순차적으로 신청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배송했다.

수산물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3월 해수부 수산물 상생발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수산물 판촉 및 판로개척 활동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자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 수산물 꾸러

미를 지원해 먹거리 복지를 실천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대상 가정에는 나눔의 추석명절이 되고, 어가에는 소비촉진을 통한 활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음식으로 전남의 신선 수산물이 애용되도록 다양한 판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름철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소비부진에 따른 수산여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꾸러미 지원 외에도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추석절 20% 할인판매, 수협 유관 쇼핑몰에 택배비 지원 등 온라인 행사를 추진하고, 이마트와 GS더프레시 등 대형매장을 통해 다

각적인 판매촉진에 나서고 있다.

오지현 기자



ACC월드뮤직페스티벌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이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 스테이지에서 열려 가족단위 시민들이 엘레멘트 오브 바라카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전남도, '양성평등주간' 행사 다채

7일까지 전시회·토론회 등 마련

양성평등과 행복한 가족을 위한 가치 있는 동행 다짐하는 양성평등주간(1-7일) 행사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기념주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매년 9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와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 주간에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2일부터 6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특별기획전시회'가 열린다.

5일 오후 2시 전일빌딩에서는 황금명륜 강사의 '젠더 불평등과 폭력예방'을 주

제로 한 성평등 특강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전남대에서는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경험 이야기를 다루는 젠더토크쇼가 이어진다.

6일 오후 7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여자 씨름선수의 삶에 대한 다큐영화 '모래바람'이 상영된다.

전남도도 지난달 30일 도청소재지인 남악 일원에서 도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남악중앙공원에서 양성평등 도민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여름밤 산책(스탬프 투어), 버블쇼·풍선아트·인생네컷 등 체험존, 도정홍보관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소중한 사람과 즐기며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또 3일 오후 1시 도청 왕인실에서 가족행복 대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의원 내정

광주시는 최근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명 중 김승남(사진) 전 국회의원을 제12대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국회·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대형 프로젝트와 광주도시공사의 주요 사업들을 잘 풀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재선 국회의원의 중량

감과 정무적 능력을 갖춘 김 내정자가 광주도시공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도시공사가 성장형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정책을 전환하는데 앞장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에 대한 선임 절차는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임명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콘텐츠제작 플랫폼 '광주온에어스테이션' 가동

CGI센터에 스튜디오 개소
최첨단 인프라 무료 서비스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남구 송하동 CGI센터 기업동 3층에 종합스튜디오인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을 개소해 시범운영하다가 최근 최첨단 기반시설(인프라)과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 9월부터 시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영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위탁해 맡는다.

광주시는 지역 내 콘텐츠 창·제작자의 기획·제작·유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2억원의 예산(국·시비 50%)을 투입해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을 조성했다.

광주온에어스테이션은 초고화질 발광다이오드(LED) 스튜디오, 호리즌 스튜디오, 오픈 라운지, 영상편집실, 영화 및 다큐멘터리 시사화장, 강의실 등을 갖췄다.

특히 다채로운 컬러 조명, 초고화질(UHD)급 원격 조정 카메라, 라이브 스트리밍 기기 등 고사양 전문장비를 갖춰 유튜브, 짧은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릴스), 라이브커머스, 프로필사진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제(무료)로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적인 촬영 지원과 장비 임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 고향사랑기부에 파리올림픽 선수들 동참

남수현 등 전남 선수 5명 동참

전남도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이 각계각층의 참여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리올림픽에 참가해 고향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빛낸 전남 출신 및 소속 선수들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개인이 하루 1000원씩 기부해 연간 총 36만5000원을 기부함으로써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에서 열린 일일 명예경기도지사 역할에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동현 경기도지사과 함께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로 어려운 지방 활성화에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실제 박해린 바이오스마트그룹 회장과 호남향우회장들, 가수 박지현 등 다양한 출향인사가 캠페인에 동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출신으로 파리올림픽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남수현, 복싱 여자 동메달리스트 임애지, 사격 속사권총 은메달리스트 조영재, 사격 트랩 이보나, 전남도청 소속 펜싱 사브르 여자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최세빈 등도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경제, 문화·예체능, 정계, 학계를 비롯해 전국 호남향우회, 중앙부처 소속 출향공무원 등 여러분이 출향도민이 참여하도록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기부금액에 맞는 답례품을 개발·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기탁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라남도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통해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